

## 5·18민중항쟁 최초 연극 '금희의 오월' ... 22년만의 무대

20일·21일·27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1988년~2000년 공연...한국 현대연극 40선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최초의 연극 '금희의 오월'이 22년만의 무대에 오른다.

극단 토박이는 20일과 21일, 27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민주화운동 작품의 고전으로 불리는 연극 '금희의 오월'을 공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작품은 대인시장에서 유과 장사를 하는 금희네 집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빠 정연, 여고생 금희를 통해 5·18을 담아내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들이 학생들을 구타하고 있다

는 소식을 들은 금희 엄마는 학교에 간 아들 정연 때문에 불안해 한다. 밤늦게 들어온 정연은 친구들이 무참히 구타당하고 끌려간 모습을 떠올리며 고통을 한다.

하지만 시위에 동참할 수 없었던 정연은 다음날 부모의 장사를 돋기 위해 시장에 나섰고 눈앞에서 계엄군이 할머니와 학생을 구타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시위에 합류한다.

돌아오지 않는 정연을 걱정하는 부모는 항쟁이 정리된 후 아들이 맹월묘역에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열한다.

작품은 5·18을 다룬 최초의 무대 연극으로 1988년 4월 제1회 민족극 한마당(서울 미리내극장) 초연된 후 광주, 부산, 대구, 목포, 여수, 순천,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됐다. 1996년에는 미국 7개 도시와 캐나다에서 관객을 만났으며 뉴욕의 브로드웨이 무대에서는 매회 기립박수를 받았다.

'금희의 오월'을 집필한 박효선(1954~1998) 작가는 전남대 국문과 출신으로 5·18 당시 시민군 흉보부장으로 활동했다.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해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설', '레드 브릭', 광주 MBC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 '밀항탈출' 등을 연출했다.

극단 토박이 관계자는 "5·18 이후 8년만에 완성된 작품은 서사적 무대극과 마당극 형식이 결합된 드라마이다.



적인 구성으로 1980년 5·18민중항쟁의 모든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첫번째 연극이었다"며 "한국 현대연극 대표 40선에 선정됐으며 5·18 대표 연극, 고전으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호 기자



### '가족이라는 이름-엄마와 딸' 무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매년 5월 패밀리콘서트 시리즈 선보일 예정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한 정기공연 '가족이라는 이름-엄마와 딸'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135회 정기공연 패밀리 콘서트 시리즈 I '가족이라는 이름-엄마와 딸'을 공연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5월 패밀리 콘서트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하모니로 전달된다.

조은아 작사·신상우 작곡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내 아버지' '엄마' '가시나무' 가무대에 오른다.

또 '쉼' '부모님의 기도' '갚을 수 없는 것 하나'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집' 등 가족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이번 공연은 따뜻한 음성의 소프라노 윤선희가 특별출연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 낭독형 공연도 진행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 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무대"라며 "합창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 광주독립영화관, 5·18민중항쟁 주제 영화 11편 연속 상영

18일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아들의 이름으로'  
19일 '좋은빛 좋은공기' '광주항쟁의 유산' '오발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영화가 광주에서 잇따라 상영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광주독립영화관에서 5·18의 역사적 의의가 담긴 영화 11편을 연속 상영한다고 밝혔다.

18일에는 1980년 5·18 즈음에 등장하는 일명 '광주비디오'에 얹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광주비디오-사라진 4시간'이 관객

을 만나다.

작품은 '광주비디오'에 얹힌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 발포 현장의 4시간을 추적하고 있다.

이어 안성기·박근영이 출연한 '아들의 이름으로'가 상영된다. 작품은 여전히 속죄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실제 없는 권력을 풍자해 '제2회 518 3분 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이홍래 감독의 '박쥐', 1980년 5월 같은 시기를 보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장태원 감독의 '5월의 푸른 날'이 소개된다.

19일에는 1980년 광주와 닮은 아픈 역사를 지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오가는 임홍순 감독의 '좋은 빛, 좋은 공기'를 비롯해 장민승 감독과 정재일 음악감독의 시청각 프로젝트 '동글고 등글게', 신정경 감독의 '광주항쟁의 유산', 구담 감독의 '오월의 만다라', 신혜빈·박희연 감독의 '석류꽃 필 때쯤', 박종운 감독의 '그날, 고등학생의 증언', 박정운 감독의 '오발탄'이 상영된다. /김도기 기자

### '5·18 기억을 연극과 오페라에' 亞문화전당 공연

18일~22일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오페라 '박하사탕' 공연실황 스크린 상영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연극과 오페라가 관객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8일부터 22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공연하고 오페라 '박하사탕'을 스크린 상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2018년 시범공연으로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 무대에 서고 있다.

작품은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벽을 하얗게 칠하는 노인 김영식의 기억을 따라 전개된다.

흰색으로 칠을 하며 기억을 지워야 하는 아버지와 형형색색으로 그려야만 했던 아들의 시간은 비극적인 현대 역사 속에서 평범한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관객은 특수 제작된 이동형 객석에 앉아 작품의 흐름과 배우의 움직임, 이야기를 따라 극장 안을 여행하듯

이동하며 관람한다.

올해 공연은 극장1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해 극적인 장면 전환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양상

를 연기자 더해져 보다 감각적이며 높은 완성도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어 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로 유명한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제작된 오페라 작품의 공연 실황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수요극장을 통해 상영된다.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오페라 '박하사탕'은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구현해낸 장대한 서사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영록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설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뻐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21일부터 남도소리울림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이 '가무악회-그린국악'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한다.

전남도립국악단은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을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동안 토요공연을 통해 관객의 박수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

오는 2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린국악' 공연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국악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정기공연으로 초연된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과 여순 가무악회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의 갈라(gala) 프로그램이 관객을 만난다.

또 기존 판소리와 민요를 재해석한 연장 판소리 '범피종류', 가야금 병창 3종주 '방아타령', 중국 상하이 민족악단 협력 작품인 무용곡 '실크로드' 등이 무대에 선다.

이 밖에도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작곡하고 연주하는 대금 드주곡 '누구나 외딴섬이다', 장작 시나위 '파탕, 방' 등을 공연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일 제63회 정기연주회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 오후 7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6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63회 정기연주회는 'Begin again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부제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협창노래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호주·필리핀 민요와 한국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과 우리에게 친숙한 '아름다운 강산' 등을 소년소녀합창단의 멋진 안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성악 앙상블 팀 '리블링스'와 '바이올린 트리오 W'가 특별 출연하고, 록밴드 '등길'과 순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순천 청소년 관현 악아카데미'의 협연을 통해 한층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일반 6,000원, 학생 4,000원으로 티켓팅크 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예매가능하다. /순천=조준의 기자